

7월 수산물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일본]

□ 수산물 수입동향

○ 2012년 5월 일본 수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14% 증가 ('11년 5월 수산물 수입액은 119,401,411천엔)

(단위: 천엔, %)

구 분	'12년 5월 당월		'12년 1~5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136,117,852	14.0	633,335,414	15.5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주요품목 수입동향

(단위: 천엔, %)

품목	'12.1~5월	'11.1~5월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전체	633,335,414	548,276,102	15.5	중국	111,075,421	칠레	76,579,193	태국	49,532,742
◦가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2,022,446	2,032,835	△0.5	인니	1,215,052	파푸아뉴기니	212,101	필리핀	201,585
◦참치류(신선,냉장,냉동)	81,941,780	75,467,619	8.6	대만	19,810,505	한국	9,440,031	크로아티아	5,979,111
- 날개다랑어	1,681,405	2,075,106	△19.0	대만	928,999	바누아투	417,671	중국	99,619
- 황다랑어	13,504,423	11,821,420	14.2	대만	4,127,430	인니	1,367,030	한국	1,088,052
- 참다랑어	22,586,641	24,317,810	△7.1	크로아티아	5,979,111	타이피	4,183,593	몰타	4,175,063
- 눈다랑어	31,643,076	26,047,262	21.5	대만	14,422,840	중국	3,270,262	인니	3,166,992
- 남방다랑어	1,905,529	1,129,191	68.8	한국	985,754	뉴질랜드	413,439	호주	262,082
◦청새치(황새치포함) (신선,냉장,냉동)	2,881,595	2,251,580	28.0	대만	875,719	인니	797,984	중국	260,832
- 황새치	1,835,537	1,504,649	22.0	대만	623,233	인니	366,562	중국	221,660
◦할 넙치	988,021	1,219,693	△19.0	한국	1,219,693	-	-	-	-
◦방어(신선,냉장,냉동)	2,728	87,200	△96.9	한국	2,728	-	-	-	-
◦도미(신선,냉장,냉동)	55,917	45,554	22.7	모로코	15,985	아르헨티나	14,571	기니	11,742
◦삼치(신선,냉장,냉동)	1,277,644	1,430,037	△10.7	한국	1,264,436	중국	6,055	피지	3,710
◦금눈돔(냉동)	1,180,861	1,117,201	5.7	뉴질랜드	453,605	쿠웨이트(뉴질랜드)	430,215	호주	159,783
◦복어(신선,냉장,냉동)	493,582	464,262	6.3	중국	478,439	한국	15,143	-	-
◦오징어(생,신선,냉장,냉동)	18,483,132	14,295,836	29.3	중국	5,472,071	태국	4,775,881	베트남	3,035,650
- 몽고오징어	5,966,038	4,010,844	48.7	태국	2,046,005	베트남	1,262,360	모로코	1,020,561
- 오징어(몽고제외)	12,517,094	10,284,992	21.7	중국	5,465,982	태국	2,729,876	베트남	1,773,290
◦전복(생,신선,냉장,냉동)	2,399,932	1,952,016	22.9	한국	1,403,961	호주	411,026	중국	84,542
◦굴(생,신선,냉장,냉동,훈제)	2,523,161	1,921,080	31.3	한국	1,403,961	뉴질랜드	16,523	미국	10,033
- 굴(생,신선,냉장)	155,023	-	-	한국	133,026	미국	10,160	중국	6,279
- 굴(냉동)	1,251,068	-	-	한국	1,219,708	뉴질랜드	16,523	미국	10,033
- 굴(훈제)	51,227	-	-	한국	51,227	-	-	-	-
◦패주(생,신선,냉장,냉동)	574,166	418,922	37.1	한국	300,206	중국	270,039	필리핀	3,921
◦바지락(생,신선,냉장,냉동)	2,837,947	2,558,071	10.9	중국	1,829,349	한국	1,008,598	-	-
◦염건 수산물	21,935,687	19,608,986	11.9	중국	7,564,128	한국	4,739,016	칠레	3,239,366
- 건조김	662,987	495,946	33.7	한국	433,269	중국	229,718	-	-
- 툇	1,138,082	1,214,718	△6.3	한국	722,583	중국	415,499	-	-
- 미역	4,216,510	5,462,599	△22.8	중국	2,744,771	한국	1,468,539	아르헨티나	3,200
◦게 조제품	8,176,022	6,559,014	24.7	중국	5,098,841	한국	1,815,375	인니	654,259
◦한천	1,742,038	1,293,057	34.7	칠레	854,954	한국	491,739	모로코	183,92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 한국산 활넙치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5월 대비 19%의 감소로, 올 1월부터 연속 5개월째 감소를 보이고 있음. 단, 감소 폭은 1월의 31% 대 초반에서 2~4월 20% 대, 5월 들어 19%로 감소 폭을 줄이고 있음.

- 한국산 전복(활, 신선, 냉장, 냉동) 수입은 금액 기준으로 전년 5월(1,290,630천엔) 대비 13.3%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일본 5월 전체 굴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1.3%의 큰 폭 증가를 보이고 있음. 단, 한국산의 경우는 전년 동월(1,881,798천엔) 대비 25%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참치류 수입은 전년대비 전체 8.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산은 남방다랑어가 전년 동월 대비 68.8%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소비 동향

○ 자국 생산

- 정어리 : 어획 호조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오염 우려로 매매 소극적
 - 정어리 어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초시 어항에서 7월 23, 25, 27일의 3일간에 약 9000톤을 어획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은 나카하네(15~16cm) 이하 소형이 주류였지만, 금년은 대형 비율이 높음.

<전국주요 어항 신선 정어리 어획고와 평균단가>

(단위 = 수량:톤, 평균단가:엔/kg)

시 기	초시		하치노헤		사카이항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수량	평균단가
6월 중순(11~20일)	690	61	0	0	744	87
6월 하순(21~30일)	1,792	76	0	0	163	138
7월 상순(1~10일)	1,910	37	37	161	5	177

(자료: (사)어업정보서비스센터 / 출처 : 미나토 7/17)

- 전갱이 : 먹이 부족 등으로 흉어 예상
 - 대마도 근해가 2% 증가한 36만 6000상자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지만, 성어기 6~7월은 저조한 추이. 한국 동해 어장은 전체 어획의 거의 반을 차지하지만, 44% 감소한 55만 상자. 작년은 4~5월에 단월로 32만상자 초과로 어획 호조였기에, 하락의 폭이 컸음. 10년과 비교하면 9% 감소. 고토 서안 근해는 22% 감소한 20만 600상자로 10년과 비교하여 26% 증가를 보임.
(출처 : 미나토 8/7)
- 꽂치 : 금년 꽂치 어군 내유가 낮고, 8월은 어항 저조, 9월은 향상 전망
 - 홋카이도 아케시나 구시로, 네무로시에서 7월 9일, 꽂치가 처음으로 어획되었음. 8일에 유자망어업이 해금되어, 조업을 개시. “어군 희박”(산지 관계자) 등으로 인해 소량의 어획에 그쳤고, 산지가는 고가로 추이됨. 150g 넘는 크기의 산지가는 kg 당 7000~4500엔 정도로 고가를 보였고, 아캣시에서는 170g 1만엔 넘는 고가를 기록.
 - 츠키지시장에서는 꽂치 초 경매가 실시되어 평균도매가는 전년 3~4배인 kg 당 7500~6000엔을 기록. 이후, kg 당 3000~1500엔(2kg 상자 13~15마리)으로 초 경매보다 7할 하락을 보였지만, 관계자는 아직도 비싼 편으로 판매가 저조하다고 함. 12일 입하량은 약 2톤(10일은 약 460kg). 11일의 휴시로 인해 출하량 증가. 츠키지 도매 관계자는 어획 해금이 너무 빨랐던 것인지,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며, 향후 시세는 “불투명”하다고 함.
(출처 : 미나토 7/10, 13. 수산타임즈 8/6)
- 기타 생산 동향
 - ☞ 동북지역 피해지에서는 부흥을 위한 어패류 생산 재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우와해 적조 피해로 잣방어 등 400톤 폐사
 - 1. 가리비 어획
 - JF 이와테어련은 7월 9일, 동일본 대지진 후 처음으로 가리비 입찰회를 개최. 11일부터 20일에 걸쳐 어획된 약 30톤에 관해 매수인 8사가 입찰에 참가, 길이 11cm 이상의 대형이 상한가로 10kg 당 3,700엔으로 거래됨.

- 대지진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의 가리비 양식이지만, 작년 가을에 홋카이도(약 7백만 개)로부터 반성패를 들여와 양식 재개. 대형 사이즈가 28.6톤, 10~11cm의 중사이즈가 0.3톤 상 장되어 대형은 3,700엔, 평균 약 3,400엔으로 거래됨.
- 대지진 전 입찰에서 125톤 입찰되어 2,300엔부터 3,000엔 못 미치는 가격이 메겨졌고, 당시와 비교하면 2~3할 고가로 추이되고 있음.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11)

2. 넙치 방류 :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 사업' 일환으로 넙치류 방류

지역	일정	방류량
이와테	6월 29일, 7월 2일, 7월 4일	255만 마리
미야기현 기센누마시 히마카어항	7월 5일	약 1,500마리(8cm)
후쿠시마현	7월 10일, 12일	10만마리
미야기현	가을 예정	약 20만 마리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10)

3. 우와(宇和)해 적조피해, 새끼방어, 젓방어 등 400톤 폐사

- 우와해(에히메현과 오이타현 사이의 바다)에 유해 프랑크톤 '칼레니아 미키모토이'에 의한 적조가 발생. 에히메현 야와타하마지국수산과 등에 의하면, 14일까지 야와타하마시와 니시고(西子)시 근해에서 새끼방어, 젓방어, 참돔, 전갱이, 고등어 등 양식어 약 400톤이 폐사되었다고 보고됨.(출처 : 미나토 7/17)

※ 츠키지도매시장 동향 (4 ~ 6월 도매회사 5사 현황)

- ☞ 양식방어, 다랑어가 호조를 보였고, 대지진으로 인한 자숙무드에서 탈피하여 업무용 관련수요 회복기미를 보이며 삼치, 홍살치 등 고급어 수요 증가. 가다랑어, 전갱이 등 제철 대중어는 어황 불안으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각사 고전.

<시장동향(도매회사)>

회사명	현 황	담 당
츠키지 어시장	- 다랑어 건투로 2% 증가. 황다랑어, 눈다랑어 필레(뼈 제거 전처리된 것)의 양판점 주문 증가. • 양식 새끼방어도 주문량 60% 증가. 가다랑어는 수량 감소로 고전. 산지가 상승으로 이익률 개선은 미흡	오카무라 신 선부장
중앙어류	- 양식방어 호조 • 수량이 10% 증가, 금액이 1% 증가였음. 양식지 량이 많은 새끼 방어, 애플랜틱 연어, 정 어리, 눈다랑어, 다루마(새끼 눈다랑어) 호조 추이. 전갱이, 가다랑어는 수량 부족으로 고전	마츠모토 신 선부장
도도(東都) 수산	- 고급품 판매가 신장 • 수량이 전년 하회, 금액은 전년 수준. 조림문어나 홍살치, 삼치, 새끼전갱이 등 고급품이 신장(작년은 대지진으로 하락하였지만 회전스시점 등 업무 관계 수요가 회복). 악천후로 인해 입하 감소, 산지가 상승 등으로 가다랑어, 전갱이 등 대중어는 고전. 양식 새끼방어는 단가 하락으로 고전. 참돔, 애플랜틱 연어 판매도 좋지 않았음.	요시무 신선부장
제일수산	- 양식어류 단가 하락에 고전 • 수량이 전년 수준, 금액은 3% 감소(단가하락). 새끼 방어, 참돔 등 양식어는 금액이 전년 수 준. 정어리는 금액이 전년 수준. 가다랑어는 금액이 전년을 하회. 보슈가츠우라의 금눈돔은 금액으로 전년을 상회. 7~9월기는 쾅치, 가다랑어, 가을 연어 필레에 기대.	나카하마 신 선부장
다이도(大都) 어류	- 업무용 회복 • 양, 금액 모두 전년을 밀돌음. 금눈돔이나 문어조림 등 고급어는 신장. 단가가 상승하고, 호 텔 등 업무용 판매가 회복. 가다랑어, 전갱이 등 대중어는 고전. 악천후에 의한 어획 감소가 영향. 소비 증세, 전력요금 인상도 소비가 하락 원인	나마라야마 신선부장

(출처 : 미나토 8/3)

○ 소비동향

- 가계 소비지출 조사(6월)

☞ **신선 2% 감소 3377엔, 고가로 뱀장어 4할 감소, 연어가 양·금액 1할 증가.**

- '12년 6월 1세대당 어패류 지출액은 평균 5,885엔. 신선어패류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한 3377엔. 구입량도 1% 감소.
- 구입량이 대폭 증가한 것은 게 2.1배, 오징어 19% 증가, 방어 14% 증가, 연어 12% 증가. 횡감용은 2% 증가. 대폭 감소한 것은 문어 23% 감소, 정어리 20% 감소, 가자미 15% 감소, 다랑어 12% 감소, 전갱이 12% 감소, 가다랑어 11% 감소, 도미 10% 감소.
- 지출액으로 보면, 대폭 상회한 것은 게 21% 증가, 연어 12% 증가. 방어 8% 증가, 꽂치 7% 증가, 오징어 5% 증가, 정어리 2% 증가. 대폭 하회한 것은 가다랑어 13% 감소, 문어 11% 감소를 보임.
- 신선어 이외에 지출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가리비 31% 증가. 어묵 9% 증가, 어패 가공절임 9% 증가, 어패 캔통조림 5% 증가, 냉동조리식품 2% 증가, 바지락 2% 증가, 염연어 1% 증가. 톳, 굴은 포함. 대폭 하회한 것은 뱀장어구이 35% 감소, 어패조림 13% 감소, 명태알 13% 감소, 치쿠와 11% 감소, .. 멸치, 가다랑어 포, 건조전갱이, 튀김어묵, 조림건조, 다시마조림도 하회함. 구입량은 가리비가 57% 로 대폭 증가. 다시마조림, 톳, 염연어도 증가. 굴이 포함. 대폭 감소한 것은 명태알 12% 감소, 가다랑어포 12% 감소, 멸치 11% 감소. 건조전갱이, 조림건조, 바지락도 감소를 보임(출처 : 미나토 8/1)

- 슈퍼 매출액 동향(6월)

☞ **신선어류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

- 일본체인스토아협회가 취합한 6월 슈퍼 매출액은 1조 93억엔. 기존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추이. 식료품이 2.5% 감소한 6245억엔. 농산품 0.7% 감소, 축산품 4.5% 감소, 수산품 4.0% 감소, 반찬류 0.6% 감소.
- 신선어류에서는 풍어였던 삼치나 전갱이, 고등어 등 근해어 외에, 바지락이나 가리비 등 패류도 호조를 보임.
- 2012년 상반기 총판매액은 1.8% 감소한 6조 1663억엔. 전국적으로 기온이 낮은 것이나 경제 불투명에 의한 소비 마인드 위축 등이 영향을 주어, 전년을 밑도는 결과를 보임. 6월로서는 이례가 되는 태풍 4호 상륙이나 전구각지의 악천후, 등이 원인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8/6)

- 어패류 소비지출(신선어류 6월, 금액 기준)

☞ **다랑어 소비는 감소를 보이고 있고, 연어 소비는 증가를 보이고 있음. 특히, 가다랑어는 고가로 인해 소비감소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음. 가자미도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음.**

- 방어는 '09년부터 '11년에 걸쳐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2012년에 6월은 전년 동월 대비 7.6%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연어는 201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들어서도 전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6월은 12.4%라는 큰 폭의 증가를 보임. 이는 뱀장어, 다랑어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체 수요로서 연어가 소비자에게 선택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

<전국평균세대 주요 어패류 소비지출액 현황>

(엔, .g)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1	2012.2	2012.3	2012.4	2012.5	2012.6	전년대비
어패류 계	88,211	85,412	81,716	78,397	6,012	5,939	6,415	6,042	6,114	5,885	△1.6
- 신선어패류	51,801	50,002	47,606	45,113	3,637	3,479	3,821	3,534	3,611	3,377	△1.9
• 신선어류	47,102	45,340	42,937	41,186	3,246	3,098	3,406	3,205	3,282	3,109	△2.7
다랑어	5,900	5,763	5,656	5,291	351	382	424	426	434	428	△7.8
전갱이	1,643	1,463	1,379	1,349	84	93	108	111	145	137	△7.4
정어리	587	594	633	541	35	56	49	44	48	57	1.8
가다랑어	1,711	1,575	1,607	1,447	50	72	107	158	196	159	△13.1
가자미	1,621	1,493	1,419	1,330	111	127	135	129	124	96	△8.6
연어	4,187	4,134	3,897	4,036	286	313	345	356	368	372	12.4
고등어	1,157	1,139	1,083	1,029	101	109	103	82	83	77	△3.8
꽂치	1,464	1,464	1,140	1,235	33	36	36	34	32	32	△6.7
도미	1,385	1,316	1,177	1,087	80	72	107	118	107	80	△8.0
방어	3,387	3,160	3,133	3,298	346	312	290	246	212	185	7.6
오징어	2,870	2,634	2,453	2,351	158	183	185	207	201	207	4.5
문어	1,298	1,390	1,338	1,202	83	73	88	94	84	98	△10.9
새우	3,625	3,604	3,322	3,285	236	232	256	247	254	243	△3.6
계	2,053	2,153	1,942	1,795	221	97	82	45	40	46	21.1
기타신선어류	8,573	7,996	7,723	7,034	627	628	694	519	539	513	△6.9
횡감용	5,641	5,460	5,035	4,877	445	313	396	389	416	381	△2.8
• 패류	4,699	4,662	4,668	3,928	391	381	415	329	330	267	8.5
- 영간어패	16,648	15,800	15,103	14,568	1,003	1,089	1,145	1,093	1,118	1,127	△3.9
- 어육연육제품	9,361	9,260	8,941	8,706	676	673	656	642	627	595	△2.3
- 기타어패가공품	10,401	10,350	10,066	10,010	696	699	792	773	757	78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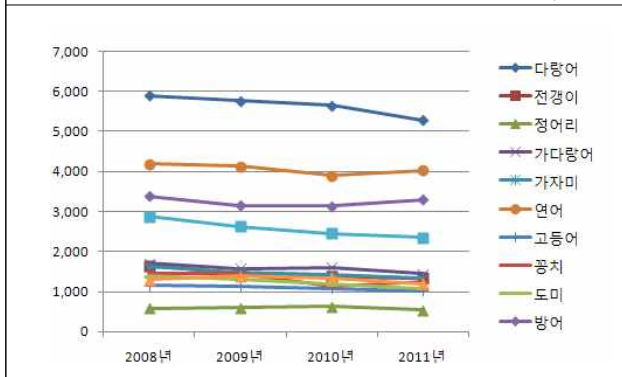
* 일본 전국 2인 이상 세대(농림어가세대 제외 결과)

* 2012년 6월은 속보치

(출처 : 총무성 통계국 가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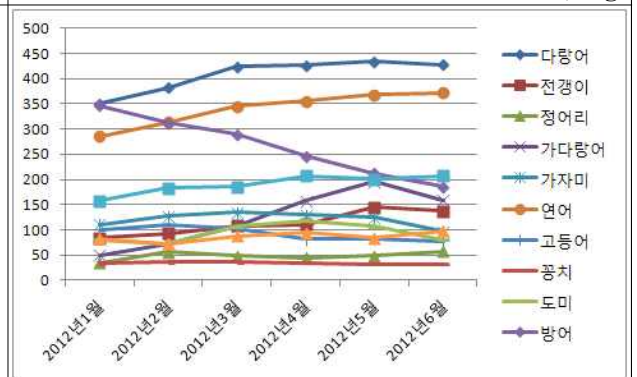
<전국평균세대 주요신선어류 지출현황>

(단위 : 엔)



<'12년 전국평균세대 주요 신선어류 지출현황>

(단위 : g)



○ 대외수입

- '12년 상반기 수입실적은, 133만 6775톤, 7494억엔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며 수량은 5.4% 증가, 금액은 12.6% 증가. 상반기에서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상회한 것은, 연간 300만톤으로 대폭 하락한 2007년 이후 처음임.
 - 원재료 조달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한 것 외에, 해외에서 반·최종 가공된 상품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외에, 초엔고가 장기화하는 중에서도 조달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액 증가가 수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나타남.
 - 주요 상품에서는, 연어·송어가 냉동 연어나 노르웨이산 공수 애틀랜틱 연어의 증가 등으로, 전체에서 전년동기 대비 22.8% 증가한 17만 600톤으로, 약 1000억엔에 달함.
 - 연어 이외에는 냉동 새우 8.2%(653억엔). 다랑어 신선·냉장 1만 5000톤, 냉동 9만톤으로 합계 약 10만 5000톤(845억엔)으로 신선이 전년 수준이었던 것에 대해 냉동은 15.3% 증가를 보임.
 - 그 외에, 냉동 명태, 고등어, 전갱이, 어육, 문어, 오징어, 소라게 등 증가. 반면, 청어, 청어알, 바다참게, 은대구 등 감소를 보임.
-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31)

□ 향후 시장 전망

○ 이슈 현안

- 여름, 가을 시즌을 맞아 꽁치, 정어리, 고등어, 다랑어 등 신선 어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대지진 피해 지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일본 내 판매동향은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자숙 경향으로 소비 부진이 있었지만, 신선 어류 소비는 2011년 대지진 재해의 외식 자제 등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2012년은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급어종에 대한 소비가 기대되고 있으며, 수입산은 연어·송어류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9)

○ 수입 전망(수입자, 벤더, 유통업자들이 말하는 체감 전망)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인한 자숙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점차 통상적인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외식산업에서의 수요 진작이 기대됨.
- 이로 인한, 업무용 고급 상재 삼치, 금눈돔, 문어 등 수요가 강화될 움직임을 보여, 수입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품목별 한국산 수입 전망>

품목	시황	일본산	전년대비
넙치	천연물은 홋카이도, 아오모리로부터, 양식물은 에히메로부터, 수입물은 한국산이 입하. 여름 시즌은 제철은 아니지만, 흰살 어류 핏감용은 연간상재.	천연물 4,000~1,000엔 양식물 1,8000~1,000엔	↗
삼치, 새끼삼치	세도나이물은 거의 없고, 여름시즌은 큐슈로부터 호쿠리쿠의 동해 어획이 중심이고, 수입물은 한국산이 중심.	일본산 삼치 2,000~1,000엔 일본산 새끼삼치 1,000~500엔 한국산 삼치 1,500~700엔 한국산 새끼삼치 700~300엔 (냉동물 삼치 1,200~800엔) (냉동물 새끼삼치 750~650엔)	↗
재첩	돗도리, 아오모리가 주류로, 여름은 알을 품고 있어 크기가 크고 제철 품목임.	일본산 1,200~400엔 한국산 800~400엔	→
바지락	일본산 자원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소형화 경향으로 되고 있음. 수입물은 한국산이 주류임.	일본산 1,000~500엔 한국산 800~450엔	→
붕장어	일본내 효고현 아와지시마에서 입화되고 있지만, 입하량은 감소되고 있음. 가공용으로는 한국에서의 전처리 붕장어가 주류로 되고 있음. 간사이 붕장어구이, 야하다마키(붕장어우영말이구이), 관동의 붕장어조림으로 사용.	일본산 2,000~1,500엔 한국산 1,800~1,200엔	→
갯장어	오이타, 도쿠시마, 미야자키, 야마구치, 에히메, 효고에서 입하. 수입물은 지방 함유가 풍부한 한국산 소형(70~80cm)가 입하. 입하량은 전년 수준으로 간사이에서는 여름 필수 상재.	일본산 5,000엔~1,000엔 한국물 10,000~700엔	↗

* 다이수이(大水)수산 2012년 8월 상품 정보 참조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8/3)

○ 한국산 수입 증감 사유

- 한국산 활납치의 기생충 의심 문제로 인해, 일본내 흰살 생선 수요가 참돔으로 옮겨가는 등 대체 수요가 발생하는 등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음
- 또한, 대지진 이후 소비 자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통상적 소비 회귀로 되고 있다는 전망이 많고, 이로 인해 외식산업에서의 업무용 수산물 고급상재 소비 증가가 예상됨으로 한국산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시사점

- 수산물관련 상품의 고가세 지속, 위생상 문제 등으로 인한 대체품 소비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의 수산물 생산 품목 및 품질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과, 지리적으로 근거리라는 이점을 살려 대체 상품 발생 시 기동적으로 대처로 일본 내 수산물 수요를 리드할 필요가 있음.

□ 특정품목 시장동향 - 다랑어

- ◇ 올 초 1마리 5,649만엔을 기록하는 등, 다랑어 수산자원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 세계 최대 다랑어 소비국인 일본은 자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난 7월 18일, '한국산 신선·냉장 참다랑어 수입 및 취급 자제' 요청 문서를 각 관계 지자체와 도매, 수입업자에 발송하는 등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해양어업자원 약 30%가 남획되고 있으며, 특히, 다랑어류는 3할 넘게 남용 어획되는 상태라고 하는 등, 세계적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다랑어 완전 양식화'가 급무로 되고 있음.

○ 생산, 소비동향

- 생산 동향

1. 다랑어류 일본 총 공급현황

- 일본은 다랑어류 국내 어획량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2011년 197,600톤을 기록하고 있음. 종류별로, 참다랑어 16,500톤, 남방다랑어 2,500톤, 날개다랑어 58,800톤, 눈다랑어 51,600톤 황다랑어 67,300톤으로 구성되어 있음. 황다랑어(공급량에 차지하는 비율은 34%), 눈다랑어(동 26%)가 많고, 고가로 거래되는 참다랑어와 남방다랑어는 합쳐서 10%에 정도임. 또한, 양식에 의한 다랑어 생산량은 2010년 약 9,000톤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음
- 2011년 일본국내 청새치류는 어획량은 16,300톤, 가다랑어류는 284,300톤을 기록하고 있음.
- 다랑어류 생산량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의 23.3만톤과 비교하면 85% 감소를 보이고 있음. 수입도 2005년과 비교하여 59%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내 총공급량도 2005년과 비교하여 70%의 하락으로 수요는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 2011년 다랑어류 주요 집산지를 보면, 시즈오카 28100톤, 고치 20300톤, 미야기 19000톤, 도쿄 15800톤, 미에 17000톤, 미야자키 18500톤, 가고시마 19600톤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다랑어류 일본 공급량 추이>

(단위 : 만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증감율(%)
국내 총공급량	855,848	810,421	747,586	739,475	768,957	684,352	△11.0
국내생산량	596,665	636,093	572,037	517,037	557,889	498,200	△10.7
다랑어류	220,331	257,655	216,885	207,436	208,051	197,600	△5.0
청새치류	18,245	20,795	19,275	16,235	18,421	16,300	△11.5
가다랑어류	358,089	357,643	335,877	293,644	331,417	284,300	△14.2
수입량	337,738	278,616	258,839	275,701	291,442	256,254	△12.1
수출량	78,555	104,288	83,290	53,541	80,374	70,102	△12.8

자료 : 농림수산성 "어업·양식업생산통계" 및 "무역통계"

2. 최근 다랑어류 생산동향(2012년 6 ~ 7월)

- 일본 제일 신선 참다랑어 집산지인 사카이항은 6월 2일 이래 누계 129톤으로 전년보다 대형 크기로 어획되고 있음. 6월 27일 당일 어획량은 72톤을 기록하였으며, 1마리 300kg 넘는 초대형도 있었음.
- 사카이항은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1,000톤을 밀도는 흥어였지만, 2011년은 1652톤으로 회복하였음.(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2)
- 미야기현 시오가마항에서 어획된 참다랑어가 도쿄 츠키지 시장에 출하되기 시작. 200kg를 넘는

대물도 포함, 평균도매가는 1kg 당 3천엔 전후. 평년과 비교하여 2할 정도 높음. 어체 100kg 전후가 중심. 1kg 당 2,500엔 정도까지 하락하면 판매가 용이할 것이고 츠키지 도매관계자는 예상하고 있음.(출처 : 일본경제신문 8/8)

- 시사통신사가 집계한 츠키지시장 7월 신선 일본국내물 3,085마리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 그 중 참다랑어는 2224마리로 53.7% 감소. 6월에 이어 돗토리 사카이항산 권망물이 939마리로 전년의 4분의 1 수준. 정치망과 낚시물 입하가 호조였던 아오모리산은 356마리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
- 크기별, 산지별로 보면, 대형은 191마리로, 주력인 사카이산 권망물이 146마리. 동 산은 "어획 시 처리가 개선"(도매 관계자)된 것으로 인해, 평균 시세는 kg 당 2085엔으로 전년보다 1.4할 높았음. 기타, 오오마 등 아오모리산이나 마츠마에 등 홋카이도산도 입하가 증가.
- 중형은 1,445마리로 43.3% 감소. 주력은 사카이 권망물이 793마리, 이어서 아오모리산이 356마리, 홋카이도산이 158마리. 권망물 평균 시세는 1870엔으로 전년 대비 1.8할 상승. 한편, 아오모리 낚시, 정치물이 유통하였던 권망 이외의 평균시세는 3660엔으로 약 1할 하락하였음.
- 소형은 343마리로, 사카이항 권망물이 적은 것으로 인해 전년의 4분의 1 이하에 그쳤음. 단, 중형과 같이 정치망과 낚시물의 입하가 호조였던 아오모리산은 272마리로 전년의 4.5배로 증가.
- 양식 다랑어는 245마리로 24.3% 감소. 경매로 팔린 48마리(19.6%)의 평균 시세는 3738엔으로 전년 동월보다 105엔 상승.
- 눈다랑어는 459마리로 전년동월 3배 넘게 증가. 가다랑어 어선이 어획한 소형(새끼눈다랑어)이 기센누마나 시오가마 등 미야기(180마리), 보우가츠우라(128마리). 단, "주낙물과 비교하여 어획 직후 처리 문제"(동) 등으로 인해 평균시세는 1073엔으로 전년의 반 수준.
- 황다랑어는 402마리로 12.4% 감소. 미야기산(79마리)가 52.4%. 미야자키산(108마리)가 37.5% 각각 감소.

(출처 : 미나토 8/7)

3. 다랑어 완전 양식화 움직임

- 참다랑어는 일본국내 소비 2만 5천톤 중 추계로 약 7할이 '양식물'임. 단, 대부분은 비교적 성장한 다랑어를 바다에서 어획하여 가두리에서 기르는 '축양'으로, 천연자원임. 천연자원임의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음. 대서양 다랑어류 보존국제위원회(ICCAT) 등의 규제로 냉동 참다랑어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의 입하량은 11년에 3,737톤. 06년과 비교하여 4할 감소하였음. 평균도매가격은 1kg 당 3,576엔으로 약 2할 상승.
- 긴키대학 수산연구소는 2002년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금년은 70~80톤의 완전양식 참다랑어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임.
- 교쿠요는 작년 9월, 완전 양식 사업화를 목표로 인공부화 기술을 가진 일본배합사료와 제휴하였음. 교쿠요의 스도우 상무는 "자원보호 관점에서 반드시 완전 양식"을 해야된다고 주장. 마루하니치로 홀딩스는 10년에 민간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인공부화에 성공. 현재, 가고시마현 아마미 오시마에서 출하를 위한 양식이 진행되고 있음.
- 도요다 통상은 긴키대와 제휴하여 '중간육성사업'을 시작하였음. 긴키대로부터 부화 후 치어를 입하, 20~30cm로 길러 타 양식업자에게 도매로 판매. 완전양식의 초기단계를 사업화하였음. 작년 11월에 처음으로 본격 출하, 1만 5천마리를 판매하였음.

(출처 : 일본경제신문 2/9)

<신선 다랑어류 월간 양 및 시세(일본내, 2012년 6,7월)>

(단위=수량:마리, 가격:엔/kg, 대:100kg이상, 중:40kg 이상, 소:40kg미만)

어종	어법	크기	2012년6월				2012년7월				전년 동월			
			수량	상한가	중간가	하한가	수량	상한가	중간가	하한가	수량	상한가	중간가	하한가
황다랑어	권망		1	1,000	1,000	1,000	194	1,700	850	600	259	1,500	803	400
	주낙·낙시·정치망		144	2,700	1,351	1,000	208	2,000	1,153	900	200	2,000	1,398	1,000
다랑어	양식	혼합	122	4,200	3,300	2,000	245	4,500	3,738	3,000	324	4,500	3,633	2,700
	권망	소	31	2,400	2,310	2,000	3	1,600	1,600	1,600	1,302	4,000	1,235	800
		대	49	3,600	2,159	1,500	146	3,500	2,085	1,200	319	4,000	1,818	1,000
		중	552	4,800	2,007	1,500	793	4,000	1,870	1,000	2,144	3,500	1,577	1,000
	기타		-	-	-	-	2	-	-	-	-	-	-	-
	주낙·낙시·정치망	소	307	4,300	2,661	1,800	340	6,000	2,811	1,700	223	5,400	2,579	1,800
		대	87	6,700	3,545	2,000	45	10,000	5,158	2,500	87	12,000	5,977	500
		중	2,164	7,000	2,833	1,300	650	11,500	3,660	1,500	402	12,000	4,153	1,500
눈다랑어	권망		34	2,500	1,038	600	81	1,500	808	600	15	1,100	943	800
	주낙 외		293	4,700	1,850	500	378	3,800	1,073	500	132	6,000	2,211	800

- 소비동향

- 신선 다랑어 소비는 2008년 5,900엔, 2009년 5,763엔, 2010년 5,656엔, 2011년 5,291엔으로 감소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신선 가다랑어 소비는 2008년 1,711엔, 2009년 1,575엔, 2010년 1,607엔, 2011년 1,447엔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음.(총무성 가계소비지출 참조)
- 세계 어획 다랑어의 약 2할이 일본국에서 소비되고 있음.
- 2011년 도매가격은 신선다랑어의 경우 수입산이 19.5% 증가, 냉동다랑어 15.9% 증가를 보이고 있음. 황다랑어는 수입산을 제외하고 일본산 11.3% 증가, 냉동품 10.9%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눈다랑어의 경우는 냉동품 6.5%의 증가를 보인 반면, 신선품은 하락을 보이고 있음. 날개다랑어는 신선품 19.4%의 증가, 냉동품 8.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남방다랑어도 수입산 신선품이 10.4%의 증가, 일본산 신선품은 19%의 하락을 보이고 있음. 수입산은 10.4%의 증가를 냉동품은 21%의 큰 폭 증가를 보이고 있음.

<2011년 다랑어류 가격동향(도쿄중앙도매시장)>

(단위 : kg/엔)

품목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다랑어	일본산	3,038	3,128	3.0
	수입산	2,686	3,210	19.5
	새끼다랑어	844	674	△20.1
	냉동다랑어	3,086	3,576	15.9
황다랑어	일본산	899	1,001	11.3
	수입산	1,219	1,211	△0.7
	냉동황다랑어	920	1,020	10.9
눈다랑어	일본산	1,758	1,723	△2.0
	수입산	1,378	1,333	△3.3
	새끼눈다랑어	529	505	△4.5
	냉동눈다랑어	1,011	1,077	6.5
날개다랑어	신선	525	627	19.4
	냉동날개다랑어	748	809	8.2
남방다랑어	일본산	2,239	1,814	△19.0
	수입산	2,189	2,416	10.4
	냉동남방다랑어	1,979	2,394	21.0

○ 수입동향

- '11년도 일본의 다랑어 수입 물량은 12.0% 감소한 256,413톤을 기록하였고, 금액은 2,385백만달러로 17.3% 증가를 보이고 있음.
- 물량기준으로 참다랑어(5.7% 증가) 외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액기준으로 황다랑어, 참다랑어, 남방다랑어, 눈다랑어는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참다랑어는 전년대비 54.1%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한국 참다랑어 대일본 수출은, 2009년 917톤(506백만엔), 2010년 1,060톤(571백만엔), 2011년 494톤(188백만엔), 2012년 6월까지 736톤(328백만엔)을 기록하고 있음.

<일본 다랑어류 수입동향>

(단위 : 천달러, 톤, %)

	물 량				금 액			
	2009	2010	2011	전년비	2009	2010	2011	전년비
합 계	275,882	291,442	256,413	△12.0	2,055,410	2,032,769	2,385,002	17.3
날개다랑어	8,761	23,460	18,210	△22.4	28,070	78,007	64,549	△17.0
황다랑어	59,667	66,277	61,514	△7.2	273,789	327,207	356,461	8.9
참다랑어	23,232	14,452	15,282	5.7	611,305	317,233	488,810	54.1
남방다랑어	10,294	8,861	8,668	△2.2	131,580	157,807	212,674	34.8
눈다랑어	92,347	85,501	74,242	△13.2	700,264	751,372	768,368	2.3
가다랑어	53,287	59,612	42,248	△29.1	59,850	69,982	69,107	△1.3
기타 다랑어	16,503	20,002	24,734	23.7	191,401	258,012	350,799	36.0

(출처 : 일본 무역통계)

○ 한국산 수입 증감사유

- 남방다랑어는 금액기준으로 2012년 5월(985,754천엔)은 전년동월(536,388천엔) 대비 83.8% 증가.
- 다랑어류는 2012년 5월(9,440,031천엔)과 비교하여 전년 동월(10,040,612천엔) 대비 5.9% 하락
- 참다랑어의 수입은 2012년 6월까지가 736톤으로 2011년 494톤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현지 수입업자에게 수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음.

○ 시사점

- 다랑어 어획, 수입 규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랑어 완전 양식화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 짐.

※ 한국산 참다랑어 수입 규제 움직임

☞ 자원관리 차원에서 수입 규제, 일본내 양식지 규제도 실시

- 일본 수산청은 2010년부터 미성어(30kg미만)의 어획규제강화를 중심으로한 참다랑어 자원관리 조치 취하였고, 올 7월 18일, 한국산 신선·냉장 참다랑어의 수입·취급 자제를 요청하는 문서를 관계 지자체 및 도매, 수입업자 등에게 발송.
- 한국에서의 신선 참다랑어 수입증가는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한국산 수입 참다랑어의 정보 수집(현재 도매 22사, 수입업자 24에서 실시)에서 밝혀졌음. 이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신선 참다랑어 수입은 18일 현재로 1,338톤에 달하여, 작년 누계 실적의 1,049톤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함. 그 중 96%는 30kg 미만의 미성어가 차지하였다고 함.
- 천연종묘에 의한 양식 가두리 수나 규모를 현재 상황에서 억제하는 등, 일본국내양식을 포함한 참다랑어 관리 강화를 추진할 생각을 내보였음
- 8월 29일 태평양 참다랑어 전국회의에서 의견 청취 계획.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7/20)